

‘여수국가산단 혁신 프로젝트’ 닷 올린다



영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국가산단 야경.

노후화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부가 혁신산단 지정을 발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경쟁력 확보 사업을 본격화한다. 여수국가산단 혁신사업은 2025년까지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구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 정주 환경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지역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은 조만간 공동으로 여수산단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관련 정책 포럼도 창립하는 등 혁신산단 조성에 지역사회의 힘을 결집할 계획이다.

◇'노후 여수산단 혁신산단 만들기' 비전 선포식=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8일 여수히든베이 특급호텔에서 지역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수산단 정의혁신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혁신사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혁신산단은 노후 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수산단은 지난해 12월 대구성서단지 등과 함께 혁신산단으로 지정됐다. 혁신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전남도와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기관, 지역대학 총장 등을 비롯한 산단 관계자 및 입주기업 등이 참여해 여수산단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정의혁신 정책포럼 창립총회를 열어 포럼회원과 운영회칙을 정하고 공동대표 등 임원

노후산단 근로환경 등 대대적 개선 20개 사업 2025년까지 3520억 투입 산·학·연·관 공동 활성화 비전 선포식

선임과 포럼 창립을 선포한다. 또 노후화된 여수산단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등 자유로운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수산단,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여수시는 연간 98조원 정도의 생산매출액 등 국가와 전남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여수국가산단 혁신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융성기를 열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국가산단 혁신사업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개 사업에 총 35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수국가산단 혁신사업은 그 첫 단추로 여수시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수국가산업 단지에 국비 등 80억원을 투입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산단 내 입주기업 237개사와 전남도, 한국산단공,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2015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유치에 주력해 왔다. 여수시는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타당성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체결, 건축설계 등의 절차를 모두 끝낸 뒤 3년간 5280㎡ 규모의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계-고교-대학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도 활성화=여수시는 지난 7월 산자부 주관 사업에 선정된 2015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를 대학과 공간적으로 통합해 연구개발(R&D)·인력양성·고용의 집적화를 꾀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대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수산단내 주삼동 삼동지구에 들어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120억원과 민자 283억원 등 총 4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전남대와 여수산단 기업, 한국산단공 등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R&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공동 R&D와 학생 현장실습, 재직자 교육 등 산학융합촉진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대 광주캠퍼스 화공안전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와 여수캠퍼스 기계설계공학부, 화공생명공학과 등 총 5개 학과 300여명이 오는 2020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여수석유화학고와 여수공고 등과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승선권 한장으로 5일간 섬여행

市, 선박 자유 이용권 '여수바다로' 20일부터 판매

앞으로 승선권 한 장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섬들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게 된다.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승선권 1장으로 5일간 여수항 연결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수바다로' 승선권 판매를 한다. '여수바다로' 자유이용권은 20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다.

'여수바다로' 승선권을 구입하면 여수 여객선사협의회 소속 6개사가 운행중인 8개 항로에서 자유롭게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다.

'여수바다로' 이용객은 최초 승선일로부터 5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설날 특별수송기간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은 여수바다로 자유이용권을 1매당 1만1400원에 판매하며, 장거리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50% 할인된 편도 2만 28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여수항도선사회는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중학생부터 28세까지 관광객에게는 구명조끼 착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복철 여수지방해수청장은 "여수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전국 청년들에게 여수가 가진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특히 비수기인 겨울철 해양여행객 증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악극 '문패 없는 주막'에 출연하는 극단 파도소리 배우들이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늦가을 악극의 감동 속으로

극단 파도소리 '문패 없는 주막' 여수·고흥·광양 공연

전남과 여수를 대표하는 극단 '파도소리'가 17일부터 여수와 고흥, 광양에서 잇따라 가는 악극 '문패 없는 주막'을 순회 공연한다.

악극 '문패 없는 주막'은 2015년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원로예술인 순회 공연사업에 선정됐으며,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없는 힘없고 가난한 민초의 울분과 한을 달래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호 파도소리 대표는 "외국 작품

과 뮤지컬의 흥수 속에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있는 전통 악극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공연은 17일 오후 3시 여수전남문화회관, 22일 오후 2시 고흥문화예술회관, 23일 오후 7시30분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정이며, 무료다. 공연과 관련된 문의는 극단 파도소리(061-685-7636)로 하면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역	구분	전화번호	
지방지사 (061)	광 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남 원 시	063)626-1601	
	순 창 군	063)653-04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시내지국	광 천	366-8375
		광 북	222-9440
		광 남	652-0175
		광 동	264-2012
광 명		222-9054	
광 부		225-6001	
광 흥		267-4748	
광 운		673-4698	
광 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5-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양 치		266-7601	
용 봉		522-7752	
우 산		512-8116	
천 현		371-9818	
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중 흥	224-6604		
진 원	673-1800		
침 단	973-2900		
중 장	224-8212		
평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862		